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청년농협의체 간담회 개최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6.03.29 17:53 | 11면

청년농업인 현장 체감하는 어려움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 개선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 26일 관내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재경)는 지난 26일 관내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, 공사 담당자 등 총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

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간담회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.

의령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,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29농가에 14.1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

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

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

이재경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"라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"라고 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. 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영찬기자